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4. 6. 26.(수)

자료문의 : 마약·조직범죄부

전화번호 : 02-3480-2290

주책임자 : 마약과장 이태순

##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 마약사범 최초 2만명 넘어, 10대·여성·공급 사범 급증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이하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노만석)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검찰의 대응현황 및 국제협력방안을 수록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마약류 범죄백서(1990년~2024년)】

- 1989년 대검찰청 마약과를 창설하여 전문 마약수사체제를 확립한 후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 파악·정책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
- 『① 마약류 개요 및 국내 마약류범죄 대응현황, ② 국제 마약류 범죄동향 및 국제협력, ③ 국내 마약류범죄 현황』 3장으로 구성
  -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마약보고서’ 참조하여 세계동향도 수록
- 백서 게시: [대검찰청 홈페이지 > 검찰활동 > 주요수사활동 > 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 > 자료실](#)

-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습니다.
- ①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9,145명으로 전년도(4,890명) 대비 약 87% 증가
- ②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도(5,804명) 대비 약 44.2% 증가하여, 전체의 35.6% 차지
- ③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전년도(4,966명) 대비 약 79.4% 증가
  - \*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증가추세 뚜렷(2021년 23.6% → 2022년 27% → 2023년 32.3%)
- ④ 외국인 마약사범은 3,151명으로 전년도(2,573명) 대비 약 22.5% 증가
- ⑤ 마약류 압수량은 998kg으로 전년도(804.5kg) 대비 약 24% 증가

-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제한적이던 **마약류범죄 수사권**을 '22. 9. 공급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회의**', '**전국 마약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2023년 주요 수사사례는 내용본문 참조

#### 2023년 주요 수사사례

- ▶ 시가 1,650억원 상당 태국발 필로폰 50kg 밀수조직 사건('23. 2. 부산지검)
  - 담배 밀수자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kg을 긴급 압수, 증거 분석을 통해 밀수조직원 8명을 인치하고, 국내 유통 담당 폭력조직 두목까지 검거한 사례
- ▶ 10대 청소년이 가담한 마약류 대량 유통조직 사건('23. 3. 수원지검)
  - MDMA 밀수사건 수사로 보관책 3명, 판매책 7명, 도매상 3명 등 유통조직을 밝혀낸 사례
- ▶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대량 처벌 사건('23. 6. 서울중앙지검)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를 적발·구속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엄단한 사례
- ▶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 조직 사건('23. 8. 인천지검)
  - 마약류 '드라퍼' 수사를 통해 총책 등 조직원 6명을 특정하여 검거·구속한 사례
- ▶ 다크웹상 대마 판매상 적발 사건('23. 11. 서울중앙지검)
  - 다크웹상 사이트에 대마 광고를 게시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전문 판매상을 적발한 사례
- ▶ ADHD 치료제 허위 처방 및 매수 사건('23. 11. 부산지검)
  -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에서 허위 증상으로 메틸페니데이트 9,000여정을 처방받은 매수사범과 이를 처방해준 의료기관을 적발한 사례

- 검찰은 ▲유엔의 마약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DEA) 주관 **아태지역국제마약단속회의(IDECC) 등 국제마약 대응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30회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대검찰청이 '89. 설립, 30개국·5개 국제기구 등 약 200여명 참석) 개최**,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대검찰청이 '12. 설립, 동남아 10개 회원국) 지원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 검찰은 **국내외 마약류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범죄 등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

## 「마약류 범죄백서」 개요

- (연혁) 「마약류 범죄백서」는 '89년 대검찰청 마약과가 창설된 이후 단일범죄군인 마약류범죄를 대상으로 '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여,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과악·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구성) ① 마약류 개요 및 국내 마약류범죄 대응현황, ② 국제 마약류 범죄동향 및 국제협력, ③ 국내 마약류범죄 현황(통계) 등 총 3장으로 구성

※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은 검찰 및 유관기관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제 마약류범죄 동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하는 '세계마약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배포 방법)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게시

※ 대검찰청 홈페이지>검찰활동>주요수사활동>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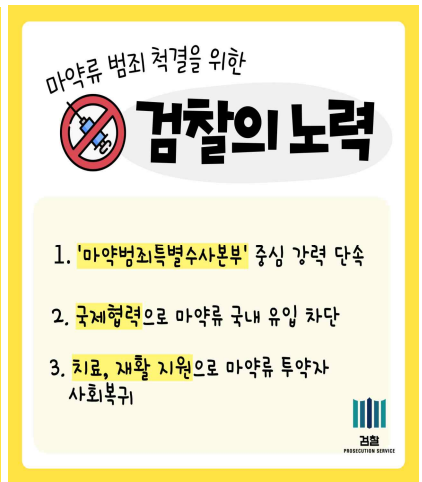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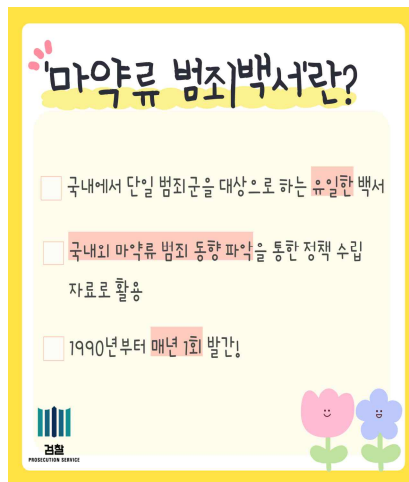
👁 기관의 실물 책자 신청

(연구 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관만 신청 가능)

※ QR코드 스캔 → 신청서 작성·제출하여 신청



- (카드뉴스 홍보)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백서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카드뉴스(7장 분량) 제작·배포



## 2

## 마약류범죄 동향

### ▣ 마약사범 현황

- (전체 마약사범) '23년 27,611명으로 최초로 2만명 넘겨, '19년(16,044명) 대비 약 72.1%, '22년(18,395명) 대비 약 50.1%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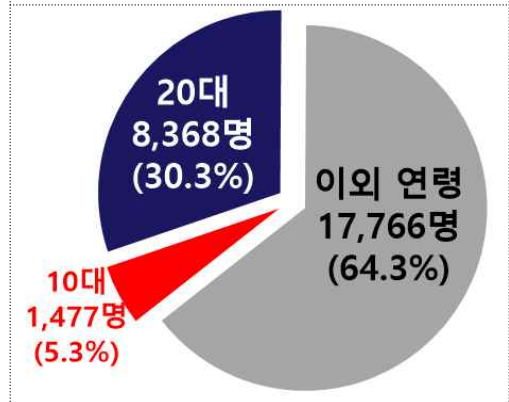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마약사범 단속인원(명)	16,044	18,050	16,153	18,395	27,611
공급사범 단속인원(명)	4,225	4,793	4,045	4,890	9,145
10대 마약사범(명)	239	313	450	481	1,477
20대 마약사범(명)	3,521	4,493	5,077	5,804	8,368
여성 마약사범(명)	3,577	4,557	3,818	4,966	8,910
외국인 마약사범(명)	1,529	1,958	2,339	2,573	3,151

- (공급사범) '23년 9,145명으로 '22년(4,890명) 대비 약 87% 급증

- (10·20대 마약사범) 10대는 '23년 1,477명으로 '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

- 20대는 '23년 8,368명으로 '22년(5,804명) 대비 약 44.2% 증가
- 10·20대 비율은 35.6%로, '21년부터 전체 마약사범의 30% 중반대 차지

【'23년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 (여성 마약사범) '23년 8,910명으로 '22년(4,966명) 대비 약 79.4% 증가

- 여성 비율은 32.3%로 증가추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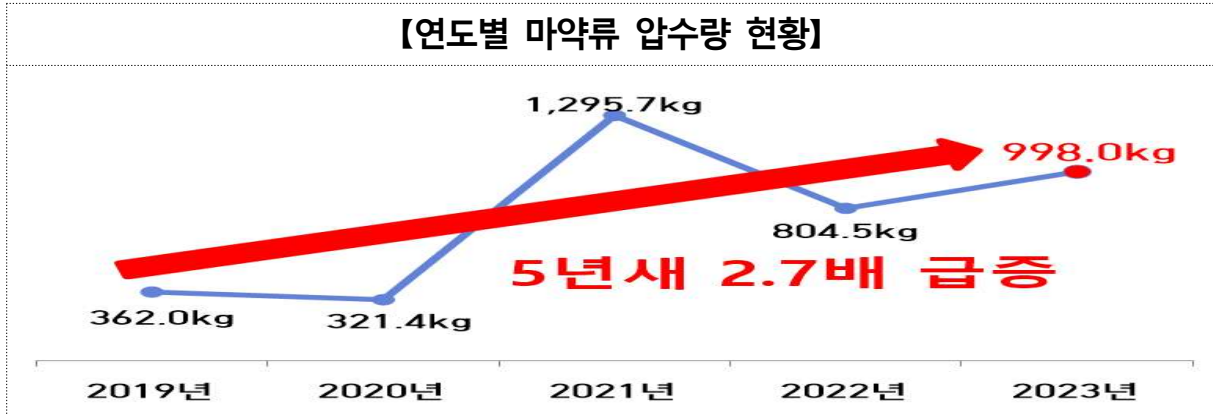
※ 여성 비율: '19년 22.3% → '20년 25.2% → '21년 23.6% → '22년 27% → '23년 32.3%

- (외국인 마약사범) '23년 3,151명으로 꾸준히 증가, '19년(1,529명) 대비 약 106%, '22년(2,573명) 대비 약 22.5% 증가

## ▣ 마약류 현황

- (전체 마약류 압수량) '23년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998kg으로, '21년 1,295.7kg으로 폭증한 후 소폭 감소

- '19년(362kg) 대비 약 175% 증가, '22년(804.5kg) 대비 약 24% 증가



-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야바·케타민·JWH-018(일명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이 전체 압수량의 82.5% 차지

- 필로폰은 '23년 405kg 압수되어 '22년(175.35kg) 대비 약 130.9% 증가
- 야바는 '21년 50.13kg → '22년 167.6kg → '23년 210.8kg으로 계속 증가
- 케타민은 '21년 13.3kg → '22년 30.79kg → '23년 42.578kg으로 계속 증가
- 합성대마는 '21년 18.74kg에서 '22년 55.69kg으로 급증, '23년 40.98kg으로 소폭 감소

- (마약) 헤로인·코카인·양귀비 모두 '22년 대비 증가하였고, 헤로인·코카인은 폭증하여 '21년 압수량에 근접해가는 추세

- 헤로인은 '23년 1.36kg 압수되어 '22년(0.035kg) 대비 약 3,791% 급증
- 코카인은 '23년 11.67kg 압수되어 '22년(0.26kg) 대비 약 4,371.6% 급증
- 양귀비는 '23년 163,999주 압수되어 '22년(118,420주) 대비 약 38.4% 증가

- (대마) 대마·대마초·대마수지 모두 '22년 대비 증가, '21년 압수량 초과

- 대마는 '23년 11,957주 압수되어 '22년(1,078주) 대비 약 1,009% 급증
- 대마초는 '23년 114.15kg 압수되어 '22년(79.3kg) 대비 약 44% 증가
- 대마수지는 '23년 3.18kg 압수되어 '22년(1.41kg) 대비 약 125% 증가

## ■ 마약류범죄 현황

- **(밀수범죄 증가)**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다패커·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
- **(밀수량 증가)** '21년 밀수량이 급증(1,016.1kg)한 이후 '22년 일시 감소하였으나(393.47kg), '23년 637.87kg으로 '22년 대비 약 62.1% 증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교류량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
- **(외국인 밀수사범 증가)** 외국인 밀수사범은 꾸준히 증가, '23년 590명으로 '19년(196명) 대비 약 3배(201%) 증가하고, '22년(551명) 대비 약 7% 증가  
※ 외국인 밀수사범: '19년 196명 → '20년 323명 → '21년 370명 → '22년 551명 → '23년 590명

### 주요 밀수범죄 수사사례

- ▶ 시가 1,650억원 상당 태국발 필로폰 50kg 밀수조직 사건('23. 2. 부산지검)
  - 담배 밀수자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kg을 긴급 압수, 증거 분석을 통해 밀수조직원 8명을 인지하고, 국내 유통 담당 폭력조직 두목까지 검거한 사례
- ▶ 국내 최초 마약류 및 총기류 동시 밀수 사건('23. 4. 서울중앙지검)
  - 첩보 입수시부터 미국 마약청(DEA)과 공조하여 밀수사범을 특정한 후 세관·경찰과 협조하여 신속히 필로폰·총기를 압수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함과 동시에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

- **(유통패턴 변화)**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소위 '오른손-왼손'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 변화
- **(유통조직 가담)**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 운영

### 주요 유통범죄 수사사례

- ▶ 10대 청소년이 가담한 마약류 대량 유통조직 사건('23. 3. 수원지검)
  - MDMA 밀수사건 수사로 보관책 3명, 판매책 7명, 도매상 3명 등 유통조직을 밝혀낸 사례
- ▶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 조직 사건('23. 8. 인천지검)
  - 마약류 '드라퍼' 수사를 통해 총책 등 조직원 6명을 특정하여 검거·구속한 사례
- ▶ 다크웹상 대마 판매상 적발 사건('23. 11. 서울중앙지검)
  - 다크웹상 사이트에 대마 광고를 게시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전문 판매상을 적발한 사례



- (의료용 마약류범죄 증가)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유통범죄 급증
- (10대·여성 사범 증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

#### 주요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사례

- ▶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대량 처벌 사건('23. 6. 서울중앙지검)
  -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하여, 권고량을 초과해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를 적발·구속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엄단한 사례
- ▶ ADHD 치료제 허위 처방 및 매수 사건('23. 11. 부산지검)
  -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에서 허위 증상으로 메틸페니데이트 9,000여정을 처방받은 매수사범과 이를 처방해준 의료기관을 적발한 사례

### 3 검찰의 대응현황

- (유관기관 협력대응) ▲'23. 2.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 관세청·식약처·지자체·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합동수사 진행, ▲'23. 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경찰·관세청·해경·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 및 실행
- (수사역량 강화) ▲'21. 1. 수사권조정으로 가액 500만원 이상 마약류 범죄만 수사 가능, 범죄대처 미흡 ⇨ '22. 9. 공급사범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정비, ▲'23. 5. 『전국 18대 지방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회의』 개최하여 수사정보 공유 및 대응태세 점검, ▲'23. 6. 『전국 마약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개최로, 새로운 공급망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 및 수사사례 공유
- (국제공조 강화) ▲'23.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마약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의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Global SMART 프로그램 전략회의』, ▲'23. 7. 및 '23. 9. 미국 마약청(DEA)에서 주관하는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총회 및 아·태지역회의, ▲'23. 10.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주관하는 아·태지역 회의인 『마약류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 '23. 5.~7.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주도하는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12. 설치)의 베트남 공안부 마약통제국(CNPD) 지원사업 실시,  
 ▲ '23. 5.~11.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추진하는 『국제마약퇴치지원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10.부터 추진)의 몽골 지원사업 실시, ▲ '23. 11. 대검찰청 마약과 주관('89.부터 개최)의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관계 강화

● **(처벌 강화)** 마약류범죄의 위험성·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 강화 논의

- **(사건처리기준 개정)** '23. 6. 검찰은 「마약류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 공급사범·청소년 대상자·상습·반복 범행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양형기준 개정)** '23. 9. 대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마약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 진행, 검찰은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 4. 강화된 양형기준을 의결, '24. 7. 시행 예정

- **(선고형 상향)** 검찰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른 적극 기소 및 엄벌 구형으로, 법원의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형기도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

○ 벌금·집행유예·1년미만실형 비율은 감소하나, 나머지 실형 비율은 증가 추세

**【마약류사범 선고 현황】**

(단위:명, 괄호:%)

구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2021년	4,747	205 (4.3)	2,089 (44.0)	463 (9.8)	1,410 <b>(29.7)</b>	351 <b>(7.4)</b>	32 <b>(0.7)</b>	20 <b>(0.4)</b>
2022년	4,618	190 (4.1)	1,986 (43.0)	465 (10.0)	1,255 <b>(27.2)</b>	403 <b>(8.7)</b>	90 <b>(1.9)</b>	40 <b>(0.9)</b>
2023년	6,030	175 (2.9)	2,446 (40.6)	502 (8.3)	1,852 <b>(30.7)</b>	648 <b>(10.6)</b>	151 <b>(2.5)</b>	75 <b>(1.2)</b>

● **(투약사범 치료·재활 지원)** '23. 6. 식약처·복지부·법무부 등과 협력, 단순 투약사범에게 중독정도 등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 실시



## 4

## 향후 계획

- (마약범죄 집중단속)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집중단속 실시
- (밀수범죄 적극대응) 검찰의 다년간 축적된 국내외 공조체계를 활용하여 밀수범죄에 대한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을 추적·검거하는 등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
- (수사인력 교류추진) 주요 마약류 수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수사당국과 신속하게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확대추진
  - ※ 현재 태국 마약청(ONCB)과 수사관 상호파견 실시 중
  - ↳ '23. 4. 태국에 파견 중인 마약수사관이 태국 마약청과 공조하여 한국행 수화물에 은닉된 야바 약 6만정을 적발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하는 등 성과
- (유통범죄 강력대응) 다크웹·SNS 등에 대한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서울중앙·인천·부산)을 적극 운용하여 유통범죄를 철저히 단속
- (유통정보 감시체계) 마약 관련 데이터를 검색·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E-drug Monitoring System)을 '24. 1. 고도화 완료, 유통범죄에 대한 수사 감시체계 강화
- (의료용 마약류 단속강화) '24. 2.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 설치하여 운용 중, 식약처·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 상습 투약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강화
- (치료·재활 확대) '24. 4.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서울·인천·대전·부산에서 본격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 예정
- 치료·재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약류의 수요억제 추진 ☐